

한국정보통신신문

페어팩스 카운티 세미나 성황리 진행

[456호] 2009년 06월 19일 (금) 10:49:01

차종환 기자 fany529@koit.co.kr

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
경제개발국(www.fairfaxcountyed.org)은
월드IT 쇼의 부대행사로 미국 시장 진출에
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‘미국
IT시장 및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
세미나’를 17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.

이번 행사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
정부조달 시장 및 상업시장에서 어떻게
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
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.

또한, 한국의 미국연방정부조달
종합컨설팅 회사인 해외조달컨설팅에서
미국정부조달시장 접근을 위한 전략 및
정부조달 계약 입찰제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국 정부조달시스템에 관해 설명했다.

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국 연방정부조달시장 및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리적인 강점 등에 대해 좀 더
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18일 진행되는 1:1 미팅에 참석할 예정이다.

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국 제리 고든(Gerald L. Gordon) 국장은 “이번 월드IT 쇼를 통해 미국 시장에 존재하는
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에 관해 많은 한국 기업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”며 “페어팩스
카운티의 비즈니스 환경은 물론, 미국 내 창업 또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
바란다”고 말했다.

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국의 한국 내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
홈페이지(www.fairfaxcountyed.org/worldwideoffices/seoul-office)를 통해 알 수 있다.

